



노인과 사회

한서대학교 김윤정



11주. 노년기 일과 은퇴

한서대학교 김윤정



CONTENTS



노년기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로부터의 은퇴와 적응



A watercolor illustration featuring a green and yellow butterfly in the upper left, a small orange butterfly to its left, and several colorful flowers (pink, green, red) with blue star-like accents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blue and white wash, and the bottom of the image transitions into a green, grassy field.

노년기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의 의미



-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
-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규정된 시간을 일정 장소에 있게 함으로써 일상의 패턴 형성에 도움이 됨
- 자아 정체감의 기본 : 직업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이며 직장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은 자아 정체감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창구 역할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 노인취업자비율

- 2018년도 기준으로 노인 취업자는 전체의 31.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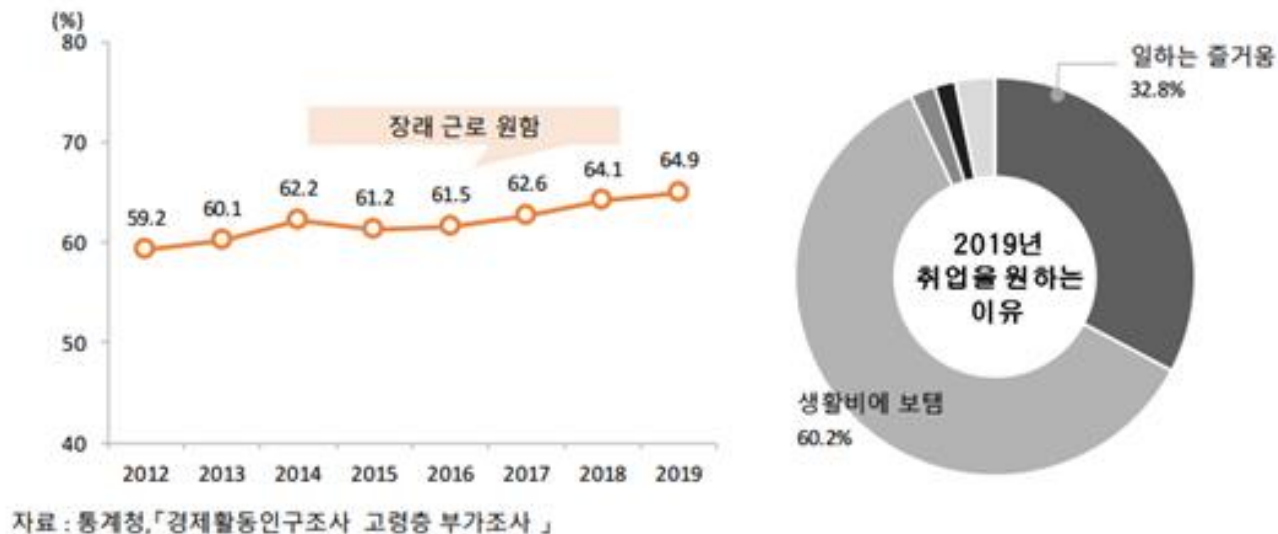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출처: 통계청(2019). 2019 고령자 통계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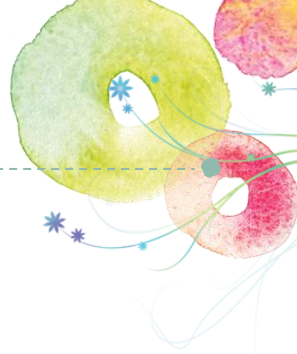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 노인의 근로희망

-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로 전년 (64.1%)보다 0.8%p 증가함(통계청, 2019).
-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60.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2.8%)」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생활비 보탬」은 증가 추세이며, 「일하는 즐거움」은 감소 추세임
- 성별로 보면, 남자(75.5%)가 여자(55.2%)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더 원했으며,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순으로 나타남(통계청, 2019)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희망과 근로희망 사유
통계청(2019). 2019 고령자 통계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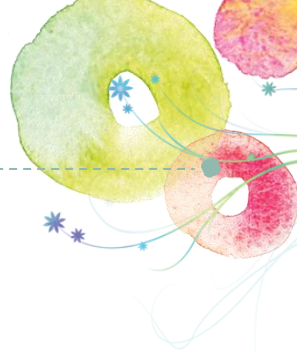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OECD국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 비교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원시연, 2019).
-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5세 단위 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55세~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74.7%)은 OECD 평균(73.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순위도 OECD 35개국 중 22위임
-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60세~64세는 11위, 65~69세는 2위, 그리고 70세~74세 연령층은 다소 격차가 있는 1위를 차지함
- 순위의 상승뿐만 아니라, 65세 이후에는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70~74세인 한국 노인의 2018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은 35.3%로, 이는 OECD 평균(16.2%)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임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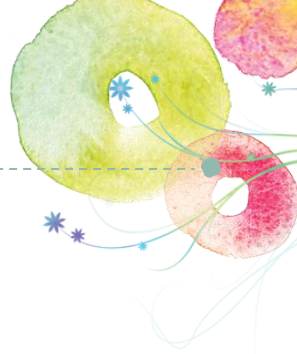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OECD국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유효은퇴연령 비교

-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2005년 이후 별 변화가 없었음
-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연령인 '유효 은퇴연령(effective exit age)'에 대한 최근 자료인 「Pensions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노동의 질 열악함 : 55~79세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자 48.9%, 농림어업 종사자가 15.5%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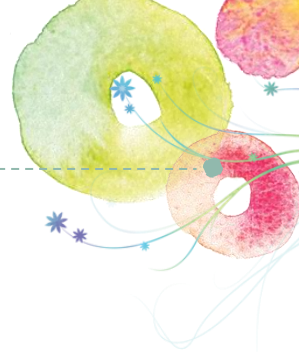
OECD국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노인소득구성 비교

- 「Pensions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63.0%로 가장 높음
- 반면 연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은 16.3%로 OECD 국가 평균(58.6%)보다 훨씬 낮음.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73.1%에 달함
 - 국가, 사회적 차원의 소득보장 지원이 부족하고 노년기 경제적 측면의 삶의 질이 개인의 어깨에 놓여지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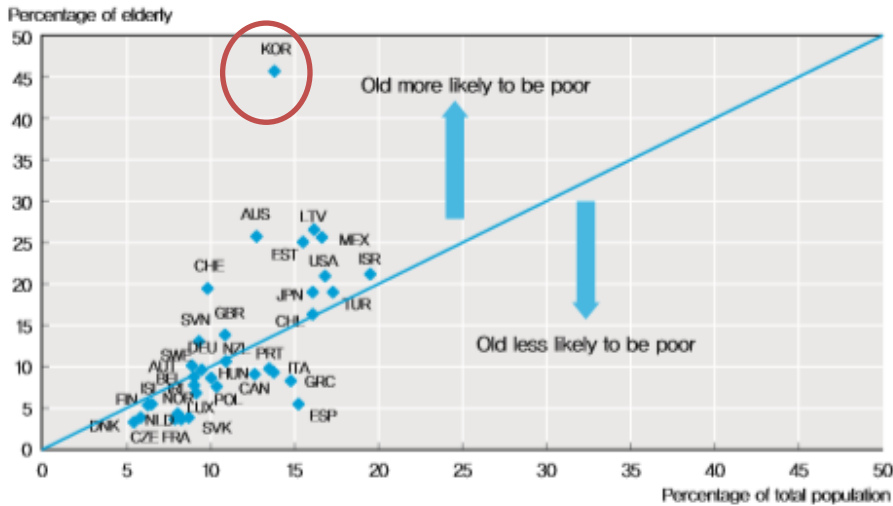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 OECD국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 노인 빈곤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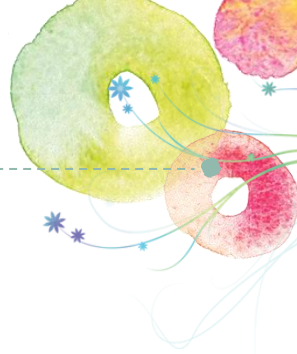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 노인층의 빈곤율이 2015년 45.7%로 OECD 평균 12.5%보다 월등히 높고 OECD 대부분의 나라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3.2%
- 그림은 전체 연령의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여줌. 점이 대각선 상단에 위치하면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을, 하단에 위치하면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전체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 보다 무려 32% 더 높게 나타남



위의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소득이 중위값의 50%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로 계산된 값이다.

노인 빈곤율의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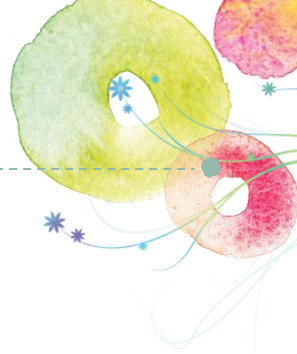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 노년기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의 삶의 기간이 은퇴 이전과 길이가 거의 동일해짐
- 노년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 활기찬 노후 패러다임(active aging paradigm) 및 활동적 신노년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증가
- 노부모 부양 규범이 약화되어 자녀들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 노인들 스스로도 노후의 경제생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증가
-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 되면서 근로능력이 남아있음
- 고학력 노인의 증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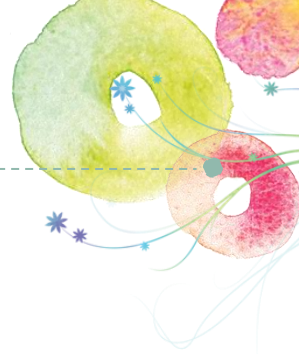
노년기 일의 의미



☑ 개인적 의미

-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때문(73.0%)(2017 노인 실태조사)
-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것임
 -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 부족
 - '일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측면과 '쉬고 싶다. 하지만 쉴 수 없다'는 측면의 두 가지 테마가 공존(남순현, 2015)
- 노년기 일의 의미에서 젠더 차이
 - 남성에게 은퇴 이후 재취업의 의미 : 자아정체성 및 생애통합의 과정
 - 고령여성의 재취업의 의미 : 생계형 취업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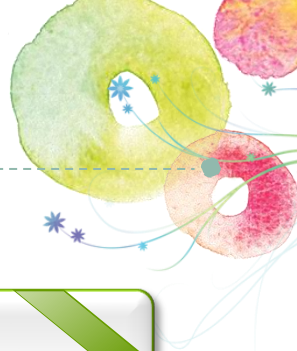
노년기 일의 의미



☑ 사회적 의미

- 건강한 노년집단의 등장과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노년기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음
- 은퇴가 젊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자리를 내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노년에도 일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
- 정부의 정책방향 : 고용연장, 재취업, 시니어 창업,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 노인은 생산성에 대한 논쟁

찬성입장

- 연령증가에 따른 손의 민첩함, 반응속도, 청력, 시력과 같은 지각능력이 감퇴 등으로 업무능력수행이 낮아진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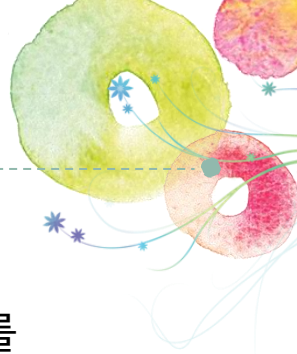
반대입장

- 노인의 결석률이나 이직률, 병가, 사고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노년기 생산성 저하 가설에 반대
- 고령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다툼, 지각과 같은 비생산적인 업무행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밝힘
- McEvoy와 Cascio(1989), Ng와 Feldman(2008)의 연구는 기존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연령과 업무수행능력은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었음을 밝힘

기타의견

- 연령에 따른 생산성 감퇴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업무 유형, 노동시장/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능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
- Waldman와 Avolio(1986)은 전문직에 비해 비전문직이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주장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 노인 일자리 보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간의 관계

- 노인이라도 원한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인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숙련되고 경험 많은 가용자원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임
- 회의적 입장 : 최근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된 청년실업과 결부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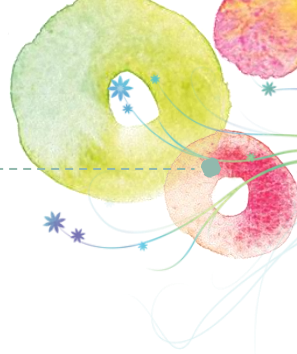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노동총량설

- 노동시장 내의 일자리 총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 청년층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다고 봄
- 최근 청년층 실업과 관련하여 노동총량설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중고령자 근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됨

대체관계 가설

- 노동자가 고령에 진입하게 되면 보다 생산적인 젊은 연령층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이론
- 노동총량설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우선, 한 사회의 일자리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전체산출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보다 많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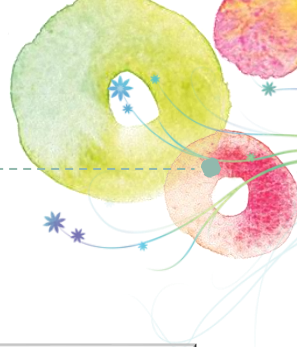


☑ 노인 일자리 보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간의 관계

상호보완설(대체가설에 대한 반대)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과 노인연령집단이 보유한 기술력이 비슷할수록 대체 정도가 크긴 하겠지만(Kalwij, Kapteyn, & De Vos, 2010) 비교적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고령자 집단과 그렇지 못한 청년집단의 노동 숙련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움
- 두 집단은 대체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더 많으며 따라서 동일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노년층이 경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최근의 실증 연구 결과들은 중고령자 노동과 젊은 층 노동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여러 의미에서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지은정 (2012) :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고령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고용률도 높게 나타남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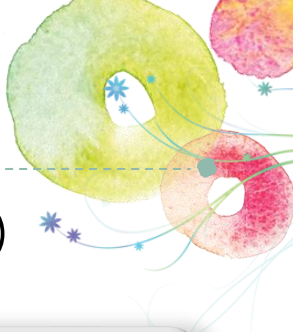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 고령층 노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 연령차별(Ageism)적 시각이 반영된 것
 - 일자리에서의 연령차별은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 승진, 교육 등의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
- Rupp 등(2006)에 따르면 기업 관리자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수록 노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일자리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2012년에 공포함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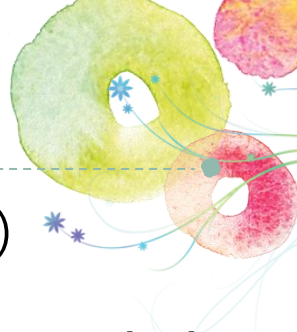


☑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2019.12, 23)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2019.12.23일 보도자료)

노인을 위한 정책은 아니나 현 정부에서는 4,50대 중장년의 고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중장년층의 고용문제가 노년기의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10대 주요과제 중 '신중년 취업지원강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포함시켜 발표함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2019.12. 23)

①(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

- 폴리텍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 확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 심사 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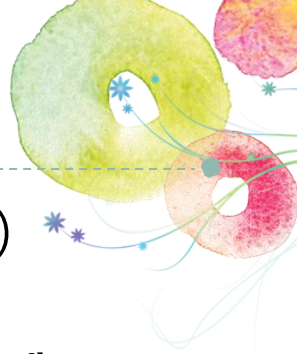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35~69세)반영·확대 등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노인 일자리 관련 논쟁



☑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2019.12, 23)

② (5~60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신중년 경력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19년 2.5천명 → '20년 5천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19년 5천명 → '20년 6천명)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도입('20.5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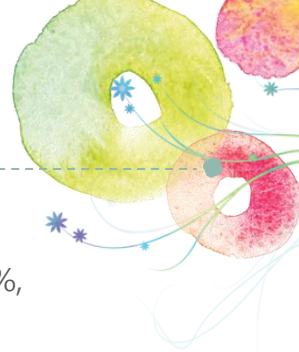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액 확대(분기당 27→30만원)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월30만원)
-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 계약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일로부터의 은퇴와 적응



은퇴제도의 역사



산업사회이전

- 육체적 쇠약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사망 직전까지 일을 하였기에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음
- 은퇴는 연금제도와 함께 성숙
- 19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노령연금제도 도입
: 70세가 되면 연금수령 가능, 연금수령연령이 퇴직연령이 됨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의 노동자를 내몰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제도 도입이 늘어남

대공황과 은퇴의 대중화

- 대공황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25%, 루스벨트 대통령과 뉴딜정책입안자들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고령자를 은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연금지급연령을 65세로 정함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노화

- 제2의 일(second career) 혹은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라는 개념이 등장
-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가 노년기의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면서 은퇴 후에도 생산적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
- 자원봉사나 주변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생산적 활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1950년대 풍요로움의 상징

-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은퇴자의 개념으로 은퇴 후에 호수에서 낚시나 골프로 소일하는 이상형을 만들고, 은퇴대비용 상품 판매

한국도 생산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에 입각하여 중장년의 앙코르커리어, 재취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활발함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은퇴의 의미



은퇴가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life event)'에서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의미

면와

- **사건으로서 은퇴** : 관점은 은퇴 전/은퇴 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퇴임식이나 퇴직연금 수령이 그 분기점을 이룬다고 보는 시각
- **과정으로서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 실제 은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은퇴준비가 시작되며, 은퇴결정, 실질적인 은퇴, 그리고 그 후의 적응까지의 단계적 절차까지를 은퇴과정으로 보는 시각
- **역할로서의 은퇴** : '소위 은퇴자' 또는 '퇴직자'라고 불리는 지위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와 그에 관련된 사회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Kimmel(1974)은 이를 '지위로서의 은퇴'라고 함

은퇴의 의미

은퇴의 단계 : 주된 일자리->**가교일자리**->완전은퇴

- 근로자에 따라서는 생애 주직업으로부터 퇴장이 바로 완전 은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직장이라고 여겨왔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옮기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 Ruhm(1990)은 이렇게 부분적 은퇴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을 주요일자리 퇴직과 노동시장에서의 완전은퇴까지의 중간단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교일자리(bridge job)라고 칭함
- 가교일자리란 급격한 소득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때까지 점진적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국의 경우 OECD 어느 국가보다도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적 기업퇴직연령 (약 55세)과 공적 연금 수령 연령(65세) 사이의 공백을 가교일자리가 보완하고 있음

▶ 가교일자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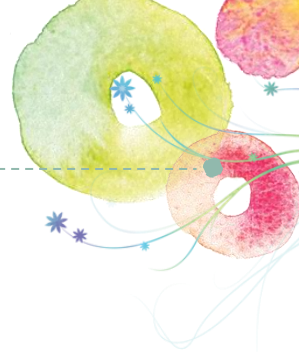


은퇴준비



- 개념 :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는 재정적 측면과 건강관리, 여가생활 준비, 심리적 대비 등의 비재정적 측면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
 - Noone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에 배우자와 은퇴에 대해 논의하고 퇴직연금과 저축을 준비한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준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
 - 재정적 준비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가 잘 되어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잘 이루어짐
- Topa 등(2009)이 은퇴준비와 관련된 341편의 논문을 메타분석
 - 건강수준이 낮고, 근무 환경이 부정적이고,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은퇴를 준비하는 정도가 높음.
 - 직무몰입 정도가 높고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를 준비하는 정도가 낮음
- 한경혜 등(2012)이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재정적 준비수준이 높고, 은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적 준비와 건강준비 수준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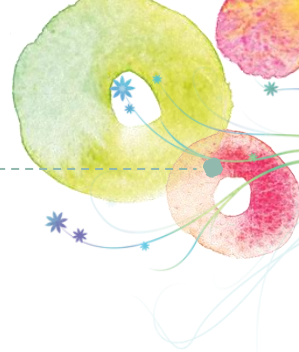
은퇴적응에 대한 이론



☑ 역할이론(role theory)

- 은퇴로 인한 역할 퇴장과 역할 전환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
 - 역할이론에 의하면 은퇴는 우울, 자존감 저하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직업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원천이기 때문
- 은퇴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 한경혜(2002)가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녀 모두 직업역할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이 더 양호함
 - 강지숙(2008)이 은퇴 적응과정을 연구한 결과, 은퇴노인들은 역할 상실에 따른 의욕 저하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직업생활에 대한 몰입도가 낮고 일이 정체성이 핵심이 아닌 경우 은퇴적응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연구(Crouter & Manke, 1994)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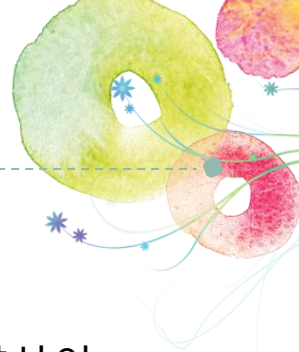
은퇴적응에 대한 이론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

- 지속이론은 은퇴를 중고령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 상실로 바라보지 않고, 은퇴 전의 라이프스타일의 지속성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개인의 웰빙 수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봄
- 지속이론도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는 역할 퇴장 및 전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부정하진 않지만 은퇴 후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선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은퇴 이후 삶의 질에 별 변화가 없다는 선행연구
 - Henning 등(2016)은 1990년 이후 출간된 종단 자료 분석 논문 32편을 메타분석. 은퇴자의 대부분이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의 웰빙 수준을 유지
 - Kim과 Feldman(2000)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기 은퇴한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교일자리에 종사하는 교수가 완전히 은퇴한 교수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은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Dingeman과 Henkens(2014)는 비자발적인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교일자리가 완충시킨다는 점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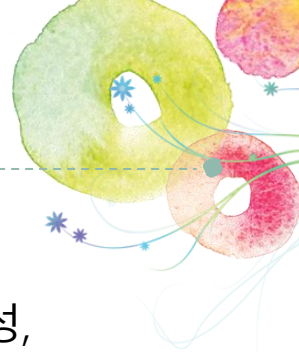
은퇴적응에 대한 이론



☑ 단계이론(Stage theory)

- 은퇴적응에서의 시간성(temporality)을 강조하는 이론. 즉, 은퇴적응의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고 봄
- Atchley의 은퇴적응 단계 이론
 - **은퇴 전 단계** : 은퇴가 먼 단계와 은퇴가 가까운 단계로 나뉨
 - **밀월단계** : 은퇴 직후에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휴식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단계, 밀월기, 즉각적인 은퇴 일상기, 쉼과 이완의 시기 중 하나를 고르게 됨
 - **환상이 깨지는 단계** : 비자발적 은퇴의 상실감, 외로움, 소외감 등이 더 커짐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 :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수용하고 은퇴에 적응하는 데에 집중하는 단계
 - **안정기: 은퇴 일상단계**
 - **종결기** : 재취업, 질병이나 무능력 등으로 은퇴자의 역할이 종결
- 단계이론은 실증연구로 거의 입증되지 못함. 단계이론에 대해선 은퇴 후 적응과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두가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됨

은퇴적응에 대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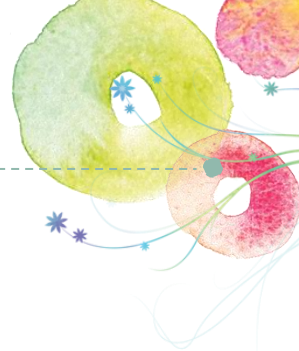


☑ 라이프코스 관점(Life-course perspective)

- 은퇴를 생애전이(transition)로서 개념화하고 전이의 맥락(context), 시간성, 생애과정의 상호 조건성, 상이한 생활영역간의 연계성 등에 주목

맥락	• 각 은퇴자가 처한 환경을 의미함 • 은퇴경험을 차별화하는 주요한 맥락에는 젠더, 은퇴의 자발성 여부 등 ➢ 젠더는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삶의 기회, 주어진 자원, 기대, 의무 등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만듦 ➢ 은퇴의 자발성 여부는 실증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당히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변수
시간성	• 은퇴의 시기(timing)에 따라 은퇴적응이 달라진다고 강조 •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시간표상에서 벗어난 전이로 적응이 어려움
생애과정의 상호조건성	• 은퇴경험과 적응이 주변의 중요한 타자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 은퇴 후 삶에 적응하는 데에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가 사회적, 정서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생활영역간 연계성	

은퇴적응 관련 요인



첫째, 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

은퇴를 하면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상실되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은퇴 후의 건강상태에 적응

셋째, 은퇴 이후 축소된 사회적 관계망에 적응

잘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은퇴 전에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활발한 교류를 해 온 사람들은 은퇴와 함께 사회관계망이 설령 위축되더라도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직업적 지위에 따른 정체감 변화에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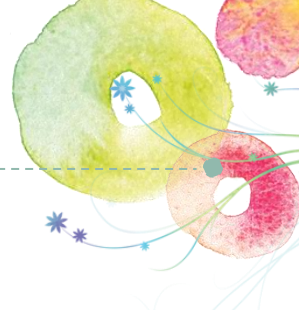
은퇴는 자아 정체감을 지탱해 왔던 직업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큰 변화이므로, 자존감의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직업지위에 기반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은퇴 후 적응에 중요함

다섯째, 퇴직 이후 여가시간 및 활동에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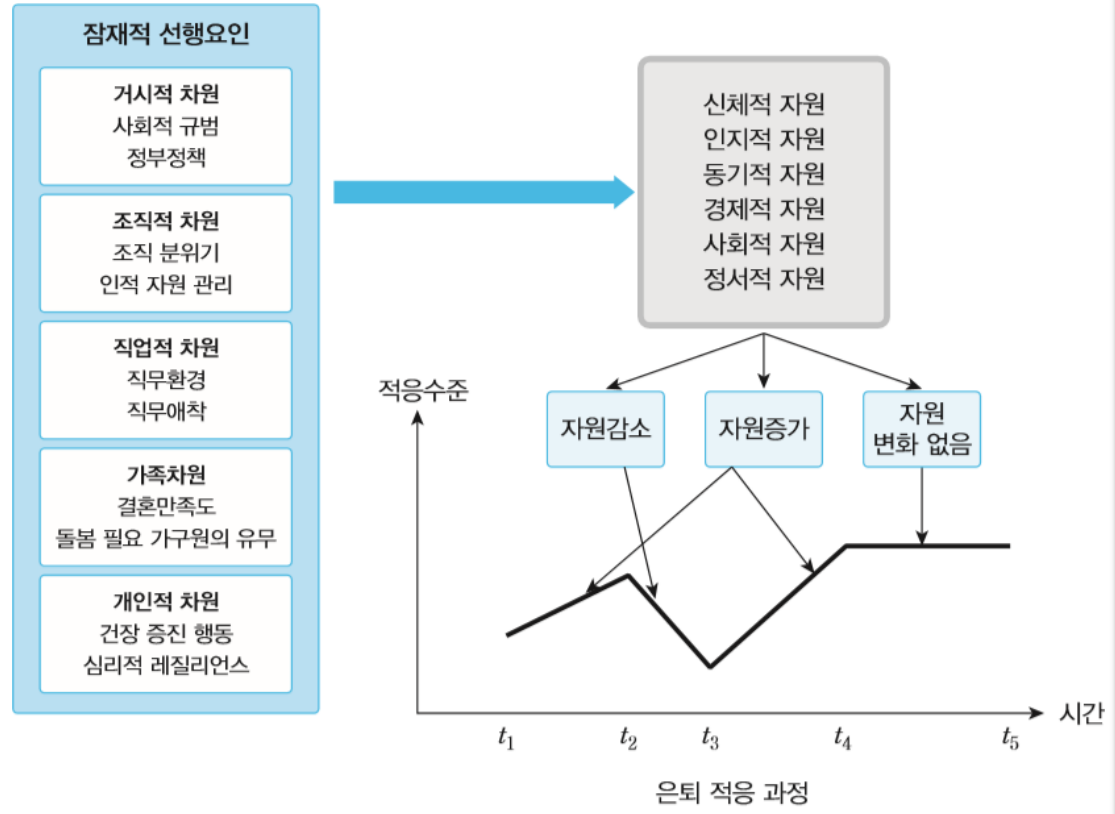
은퇴 후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줄어들
퇴직 이전의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 정도와 재정상태,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은퇴 후 여가
활동 참여도에서 개인차가 나타남. 은퇴자로서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로 채우기보다 적극적이고 이미 있는 여가생활을 구축하는 것이 적응이

은퇴적응 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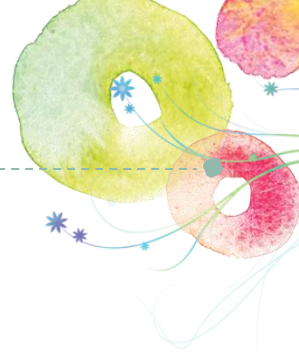
☑ 자원-역동성 관점에 입각한 은퇴 적응 과정의 이해



Wang et al.(2011)의 통합적 은퇴적응모델

- 은퇴 후 보유 자원이 감소하면 은퇴 후 적응이 어려워지고, 보유자원이 증가하면 적응이 원만해지는 등 보유자원의 변화와 적응수준의 변화가 방향을 같이 한다고 봄
- 은퇴자의 자원은 신체적, 인지적, 동기적(motivational),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원으로 구성됨
- 은퇴 후 보유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antecedents)은 사회적 규범, 정부정책 등의 거시적 차원 요인, 회사조직 분위기나 인적 자원 관리, 직업여건과 같은 직업차원 요인, 결혼만족도, 돌봄 필요 가구원의 유무와 같은 가족 차원 요인, 그리고 건강 증진 행동, 심리적 레질리언스 등의 개인적 차원 요인으로 구성됨

은퇴적응 관련 요인



✓ Hornstein과 Wapner(1985)에 따른 은퇴 후 적응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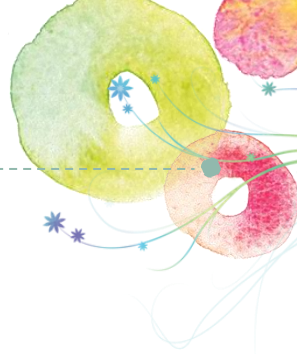
- 은퇴 후 적응방식을 '사람' 단위로 유형화함
- I. 노년기로의 전환형, II. 새로운 시작형, III. 일 지속형, IV. 강요된 분열형
- 일 지속형에게 있어 은퇴는 그다지 주요한 생애사건이 아니고 큰 변화가 없음
- 강요된 분열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일 지속형과 동일한데,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이 큼. 은퇴로 인하여 자신의 생산성, 독립성이 상실되었다고 여기는 유형임



은퇴적응의 시간에 따른 변화

- Pinquart와 Schindler(2007)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1985년과 2003년 사이에 은퇴한 1456명의 37년간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 확인
 - 유형 1 : 은퇴 이후 아주 작은 폭의 일시적인 삶의 만족도의 증가를 경험
대다수가 유형 1에 속함
유형 1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유형 2, 3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혼인한 상태였으며,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임
 - 유형 2: 일시적이지만 매우 큰 폭의 삶의 만족도 증가를 보임
 - 유형 3 : 큰 폭의 삶의 만족도 저하를 경험하는 유형
유형 3은 유형1과 유형 2에 비해 은퇴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함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퇴직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음
- 은퇴는 복합적 과정이며 은퇴 후 적응에 많은 개인차가 존재하는 이질적 경험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풍요로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은퇴와 가족관계



- 은퇴 후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Davey와 Szinovacz(2004)가 종단데이터로 분석하였을 때, 아내의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적응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차이
 - 남편의 은퇴가 대부분의 아내에게는 '소득은 반으로 줄고 돌봄은 두 배로 늘어나는 현상(twice the service and half the income)'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저하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급격함
- 은퇴 후 성인자녀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음

학습마무리



학습 정리

1

노년기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의 의미, 노인의 경제활동 추이, 노년기 일의 의미 노인일자리 관련 논쟁

2

일로 부터의 은퇴와 적응

은퇴제도의 역사, 은퇴의 의미, 은퇴적응에 대한 이론, 은퇴적응 관련 요인, 은퇴적응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은퇴와 가족관계

생각해볼 문제

노년기에도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때 노년기에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을 정부의 측면, 지역자치단체의 측면, 기업의 측면에서 조사해보시오.

참고자료

- * 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 (2019). 노년학, 신정
- * 통계청(2019). 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 * 표와 그림 출처(따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한경혜 등 (2019). 노년학, 신정

A watercolor illustration featuring a butterfly with green and yellow wings flying in the upper left. Below it is a smaller orange and yellow butterfly.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are stylized flowers in shades of pink, orange, and green, with small blue star-like flowers scattered around them.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blue and white wash, suggesting a sky, with a green grassy field at the bottom.

감사합니다.